온전한 자연 재료로 빚어낸 공예예술의 미학

21일까지 예술공간 집 기획전
고보경·김설아·김전욱 등 6인
공예예술·드로잉 50여점 선봬

가장 온전한 자연의 재료들로 빚어낸 공예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동구 갤러리 예술공간 집은 '위드아워핸즈(With Our Hands)'와 함께 기획한 전시 '온전한 밀도'를 오는 21일까지 연다. 고보경(섬유), 김설아(현대미술), 김전욱(목공예), 백아란(섬유), 신민석(목공예), 이치헌(도자)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를 통해 예술의 가치와 기물이 가진 쓸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작은 찻잔부터 달항아리, 거대한 의자 등 공예와 순수미술 접점에 있는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작품이 가진 멋스러움은 1967년 만들어진 한옥집 예술공간 집과 만나 깊은 미학을 보여준다.

고보경 작가는 한 가닥의 실로부터 시작된 부드러운 조각을 만들어낸다. 한 가닥의 가느다란 실과 바늘이 맺은 촘촘한 연결고리는 끝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가느다란 실들은 촘촘히 공기와 빛을 함께 머금고 면을 만들어 낸다. 기물(병·그릇 등)을 감싸며 만들어 낸 섬세한 실과 바늘의 행적이 돋보인다.

김설아 작가는 이번 전시에 드로잉 작품과 프린트 에디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의 움직임, 혹은 소리를 탐색하여 언어화할 수 없는 작은 목소리를 지닌 대상을 환유적 상상력으로 소환한다.

김설아 작가 의도처럼 섬세한 선들이 자아낸 형상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미지의 생명체와도 같이 인식된다.

지리산 구례의 자연 아래에서 목기와 가구를 만드는 김전욱 작가는 '나무'를 주재료로 다양한 것들을 만든다. '거믄목기'로 불리는 목기들은 통나무를 깎아 다듬고 불에 태우고, 토종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을 큰 용기에 넣어 함께 끓여내는 삼투압 방식으로 제작됐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찰 목공예 기술인 '밀랍 담금' 기법을 계승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구유, 제주 함지박 등을 재가공한 의자 등 '거믄목기' 외에 다양한 형상의 의자들을 선보인다. 나무 결과 형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백아란 작가는 섬유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따뜻함과 유연함을 '이어짐', '엮어짐'의 형상으로 이미지화 한다. 이를 빗대어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

신민석 작가는 목공예를 기본으로 하는 가구디자이너로 어릴 적 향수로부터 기인한 작품을 만들어왔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생활 소품이나 도구들을 장난감 삼아 놀던 기억들이 모티브가 돼 많은 이들과 기억을 공유한다.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툴을 보여준다. 단단한 나무 결과 아름다운 색은 한옥집의 나무들과 어우러짐을 선사한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보이는 이치헌 작가 달항아리들은 전시장 바닥에 놓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무한 변주되는 백색 달항아리와 기물들은 전시장 벽면과 테이블 위에서 한데 어우러지며 자연을 닮고자 한 작가의 손길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전시를 공동 기획한 '위드아워핸즈'는 문화현장에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정유진 대표가 이끄는 브랜드다. 현대 공예작가 실용적인 기물이자 미술적 가치를 지닌 조형물인 공예 작품을 큐레이팅 해 소개하고 판매한다. 갤러리를 비롯한 공간과 협업을 통해 한국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동구에 있는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공예 전시 '온전한 밀도'가 21일까지 열린다. 예술공간 집 제공

"45년전 찍은 국립광주박물관 옛사진 찾습니다"

1978~1979년 촬영한 사진
1월18일 마감… 상품권 지급

국립광주박물관은 개관 45주년을 맞아 1978년 개관 후 1년간 국립광주박물관 모습이 담긴 추억의 옛사진을 내년 1월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1978년 12월6일부터 1979년 12월6일까지 개인이 촬영하거나 소유한 사진을 대상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의 역사와 정취가 담긴 옛사진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새소식'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원본 또는 이미지 파일)과 함께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5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옛사진은 국립광주박물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국립광주박물관 내부(전시실)를 찍은 사진, 국립광주박물관을 단독으로 촬영한 사진, 국립광주박물관이 나온 인근 지역 풍경사진 등을 말한다.

제출한 작품은 내부심사를 통해 우수사진을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발표는 내년1월31일 개별통보와 함께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공모전에 참여한 전원에 기념품을 지급하며 선정된 우수사진(20점)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옛 사진 자료를 발굴, 국립광주박물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애령 국립박물관장은 "옛사진 공모전을 통해 국립광주박물관을 기억하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22일까지 접수 등 오디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권기원 상임지휘자와 함께 할 신규 청소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 거주하는 초등 4년(12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가능)부터 고교 2학년까지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며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자유곡 악보 1부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실기전형(자유곡 1곡·음정 테스트·따라 부르기)과 면접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1월 8일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한다. 단원에는 공연 수당 및 활동 지원금, 단복, 간식, 음악캠프 및 워크숍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정기연습 일정은 학기 중 매주 화·목(오후 6시~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이다. 정기공연 및 외부 공연 시 상황에 따라 연습이 추가될 수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062-613-8246)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강미미 작 '둥지를 지키는 달팽이들'.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예술창작소 입주 강미미 작가 '결과보고전'

29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예술창작소 강미미 입주작가가 결과 보고 전시회를 연다. 전시는 '나는 강물처럼 그림'을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광주예술창작소 3호실에서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예술창작소'를 개소해 입주작가들에게 작업공간과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미미 작가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창작소 입주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강 작가는 광주천 생태계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보여주고 있다. 광주천 계절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환경에 대한 주제로 광주천, 달팽이, 뿌리, 돌의 소재를 통해 자연에 듣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8월에서 11월의 모습을 담은 광주천 스케치 53점과 입체 작품 3점, 평면 작품 10점이 전시된다.

전시 관람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다. 11월 광주천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또한 광주문화재단 유투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